

험난한 한국양계의 미래를 위해 지혜의 통합을

- 양계포럼의 설립을 제안하며 -



강 창 원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본회 편집위원

매년 겪는 일이지만 설명절을 앞두고 친지에게 소품이나 명절선물을 보내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다. 선물을 축산물로 하기로 했으나 받으실 분들이 축산물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지라 이름이 알려진 지방단체 브랜드 축산물이 좋을듯 하여 연락처를 찾아 직접 주문을 하려니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홈쇼핑에 익숙한 사무원에게 부탁하여 며칠 만에 해결은 하였으나 답답한 점이 많았다. 물론 백화점이나 우체국을 이용하면 간단하련만 이 브랜드를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만약 일반 소비자였다면 누가 이러한 불편을 참고 주문을 하겠는가? 아마도 브랜드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에 치중하다보니 그 다음 마케팅과 유통 등 서비스로 소비자까지 통합시키는데 소홀하였던 것 같다.

최근 널리 읽혀지고 있는 미래학자 토플러(Toffler) 부부의 저서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 보면 부의 창출시스템이 제1물결인 키우는 것(growing), 제2물결인 제조(making), 제3물결인 서비스(serving), 지식(thinking, knowing) 및 경험(experiencing)으로 진화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부를 창출하는 3가지 기반, 즉 시간과 공간 및 지식의 통합(융합, fusion)과 분화과정을 밟으며 격렬하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나가고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설명하고 있다.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업으로 하고 있는 나로서 경제, 사회 및 문명의 변혁 등 거대담론을 꺼낼

생각은 없다. 다만 그간 산업현장과 기술자문을 하는 동안에 겪어온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이들 세 가지 부의 창출기반의 변화를 소홀히 여기거나 둔감한 기업이나 산업들일수록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아왔다. 빨리 빨리 문화에 젖은 우리로서는 시간의 중요성은 강조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익숙하다. 문제는 공간과 지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여겨진다. 그간 우리산업계는 개인주의와 무한 경쟁이라는 흐름 속에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부의 창출을 도모하는 노력 즉 분화의 장점들을 잘 살려왔다. 축산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가장 먼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나름대로 잘 대처해온 양계산업의 분야별 노력과 발전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만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장발전에 자족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도전과 장애가 도사리고 있어 한국양계의 미래는 험난하다 하겠다. 현재도 진행중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농업강국과의 FTA 추진, 사료곡물의 바이오가스연료화로 인한 사료비 폭등, 농장 HACCP, 양계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 트랜스지방 함유증에 따른 소비감소, 유통업자들의 지나친 가격할인 등등 헤쳐나가야 할 길이 지난하다. 이에 대하여 걱정도 많고 백가쟁명식 대안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축산업계에서도 가장 먼저 변화를 읽고 분야별로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해온 양계업계가 이제는 다양한 분야별지식과 지혜의 통합을 통해서 험난한 미래에 대비하기를 제안한다. 그 방안으로 “한국양계 포럼”을 설립하여 자유로운 토론과정을 거쳐 현재와 미래의 발전대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포럼(forum)이란 고대로마 시대에 시민들이 도시중심부에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도시 광장에서 유래한다. 포럼에서는 심포지엄보다 좀 더 자유토론이 강조되어 초청된 연사와 토론자들 간의 발언은 물론 청중과 토론자 및 청중들 간의 의견 개진이 자유로워 다양한 의견의 충돌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앞서가는 나라나 사회 및 조직에 있어서는 융합 또는 통합을 위해 싱크탱크(think tank)가 조직되어 있고, 이들이 연구나 포럼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수많은 포럼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것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지혜를 수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제작년 학술단체인 한국가금학회에서 “양계포럼 설립”이 논의된 적이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순수한 학문과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들의 모임에서 때로는 이해가 상충될지도 모르는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의 통합과정을 주관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고 운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어 발의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좀 더 시대의 흐름과 발전을 직접 감지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주관되어야 성공적인 포럼이 되리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은 물론이고,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분야별 융합(fusion) 또는 통합이 시대의 요청이고 대세이다. 토플러의 세 가지 물결, 즉 기르고, 만들고,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한국양계가 좀 더 나은 부의 창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화만을 거듭하기 보다는 분화된 지식, 기술 및 지혜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가해져야 하리라 본다. 우리 양계업계도 통합된 지혜를 도출하기 위해 양계 싱크탱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양계포럼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양계**